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국어를
만들어 드립니다. -김도성-

[1~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018년 수능]

왕비가 웃으며 말했다.

“부인이 이곳에 오긴 오겠지만 아직 때가 멀었소. 남해 도인이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탁하게 될 것이오. 이 또한 하늘의 뜻이니라.”

사 씨가 여쭙었다.

“남해라면 바다 끝으로 알고 있습니다. 첩에게는 탈 것이 없고 돈도 없는데 어찌 갈 수 있겠나이까?”

왕비가 말했다.

“조만간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조금도 염려 마라.” 이윽고 좌우에 앉아 있는 부인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위국부인 장강*, 한나라의 반첩여* 등이 있었다. 사 씨가 다소곳이 일어나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다.

“뜻밖에도 모든 부인님의 얼굴을 오늘 뵙게 되니 크나큰 영광입니다.”

드디어 하직을 하고 여동의 인도를 받아 내려오는데, 걷었던 ㉠주렴을 내리는 소리가 요란하였다. 이 소리에 놀라 몸을 일으키니 유모와 시비가 부인이 깨신다 하고 부르거늘 사 씨가 일어나 앉으니 이미 날이 저물었다. 멍한 정신이 한참만에야 진정되었다. 입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났고 왕비께서 하시던 말씀이 뚜렷했다. 유모에게 물었다.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

유모와 시비가 대답했다.

“부인께서 기절하는 바람에 소인들이 간호하여 이제야 깨어나셨는데 어디를 가셨단 말입니까?”

사 씨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대나무 수풀을 가리키며 말했다.

“분명히 저 길로 갔다 왔으니 어찌 꿈이라 하리오. 믿지 못하겠다면 나를 따라오라.”

그러고는 길을 찾아 대나무 수풀 뒤쪽으로 가니 사당이 하나 있었다. 현판이 걸려 있는데 황릉묘*라고 쓰여 있었다. 분명 아황과 여영, 두 왕비의 묘로 ㉢끝에서 본 것과 같았다. 사당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두 왕비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이에 사 씨가 향을 피우고 절하며 말했다.

“첩이 왕비의 가르치심을 입어 훗날 좋은 시절을 만나서 영화를 누리게 된다면 어찌 그 은혜를 잊으리까?”

분향을 마친 후 앉아서 신세를 생각하니 슬픔이 밀려왔다.

시비를 시켜 묘지기 집에 가서 밥을 구해 와서는 세 사람이 나누어 먹었다. 이윽고 사 씨가 말했다.

“의지할 곳이 없으니 신령이 나를 놀리시는구나.”

앞길이 막막하여 어쩔 줄 모르는 중 벌써 달이 밝았다. 세 사람이 방황하고 있는데 묘문으로 두 사람이 들어와 물었다.

“어려움을 만나 물에 빠지려 하시는 부인이 아니옵니까?”

사 씨가 눈을 들어 자세히 보니 한 명은 여승이고 다른 한명은 여동이었다. 크게 놀라며 말했다.

“어찌 우리를 아는가?”

여승이 함장하고 말했다.

“우리는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인데 조금 전 꿈결에 관음보살께서 어진 여자가 화를 만나 날이 저물어 갈 곳을 몰라 방황하니 급히 황릉묘로 가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배를 저어 와서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략)

한편 한림학사 유연수는 유배지에 도착하니 바람이 거세고 인심이 사나워 갖은 고초를 겪게 되었다. 외로운 가운데 이러한 고생을 하니 예전의 충명함이 점점 돌아와 뉘우치며 말했다.

“사 씨가 동청을 꺼렸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말이 옳도다. 어진 아내를 의심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대하리오.”

밤낮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탄식하니 병에 걸리고 말았다. 이곳에는 마땅한 의약이 없었다. 병세는 날로 심해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하루는 흰 옷 입은 노파가 ㉠병(瓶)을 들고 와서 말했다.

“상공의 병이 위독하니 이 물을 먹으면 좋아지리라.”

한림이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데 유배당한 사람의 병을 구하시오?”

노파가 말했다.

“나는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고는 병을 뜰 가운데 놓고 사라졌다. 한림이 놀라 일어나니 ㉡뽕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다음 날 아침 하인이 뜰을 청소하다가 들어와 고했다.

“뜰에서 물이 솟아나옵니다.”

한림이 이상하게 여겨 창을 열고 보니 꿈에 노파가 병을 놓았던 자리였다. 물을 한 그릇 떠오라고 해서 마시니 맛이 달고 상쾌한 것이 마치 단 이슬을 먹은 것 같았다. 원래 행주는 수질이 좋지 않은 곳이다. 한림의 병도 그렇게 좋지 않은 물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그런데 이 물을 먹은 즉시 병세가 사라지고 예전의 얼굴과 기력을 회복하였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이후로도 그 샘은 마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마셨다. 이로 인해 물로 인한 병이 없어지자 사람들이 그 샘을 학사정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전해진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장강 : 춘추 전국 시대 위나라 장공의 아내.

* 반첩여 : 한나라 성제의 후궁.

* 황릉묘 :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사당.

1:100

- 1) 훗날 '사 씨'는 꿈속에서 만난 왕비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O, X)
- 2) 여승과 여동은 '사 씨'를 남해 도인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O, X)
- 3) '유연수'는 과거에 '사 씨'의 말을 듣지 않고, 의심한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 (O, X)
- 4) 위 소설에서 '왕비'와 '노파'는 '사 씨'와 '유연수'를 위기에서 구해주는 역할을 한다. (O, X)
- 5) '사 씨'와 '유연수'의 입몽과 각몽의 순간을 정확히 알 수 있다. (O, X)

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 씨'는 꿈에서 '왕비'로부터 '남해 도인'과 인연이 있어 바다 끝으로 향할 여정이 예비되어 있음을 들었다.
- ② '사 씨'가 기절한 사이 '유모'는 황릉묘에 가서 '사 씨'를 깨울 방도를 찾아 왔다.
- ③ '사 씨'는 묘에서 만난 '여승'의 말을 통해 여승 일행이 찾아 온 연유를 알게 되었다.
- ④ '유 한림'은 전에 '동청'을 꺼렸던 '사 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 씨'를 의심했었다.
- ⑤ '마을 사람들'은 '유 한림'의 사례를 보고 수질 탓에 생긴 병을 없앨 방도를 찾을 수 있었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사 씨'가 꿈에서 깨게 되는 소리로, '사 씨'가 비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이다.
- ② ㉡ : '사 씨'가 꿈에서 보았던 곳과 같은 장소로, 비현실적 상황과 현실적 상황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공간이다.
- ③ ㉢ : '사 씨'가 꿈에서 보았던 왕비의 모습을 환기하는 물건으로, 초월적 존재에 대한 '사 씨'의 믿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④ ㉣ : '사 씨'가 꿈에서 계시를 받아 사전에 준비한 수단으로, '사 씨'가 두 왕비와 재회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이다.
- ⑤ ㉤ : '유 한림'이 꾸 꿈에 등장한 물건으로, '유 한림'이 처한 위급한 상태를 호전시킬 방도가 생기게 하는 단초이다.

3.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는 모두 꿈을 꾸 주체를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출현한다.
- ② ㉠과 ㉡에는 모두 꿈을 꾸 주체가 만나고 싶어 하던 역사적 인물이 등장한다.
- ③ ㉠과 ㉡에는 모두 꿈을 꾸 주체가 처한 고난이 심화될 것임을 암시하는 징표가 제시된다.
- ④ ㉠에는 ㉡에서와 달리, 꿈을 꾸 두 주체가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 나타나고 있다.
- ⑤ ㉡에는 ㉠에서와 달리, 꿈을 꾸 주체의 출생 내력이 제시되어 있다.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8세기의 선비인 이양오는 「사씨남정기」를 읽고 「사씨남정기후서」를 썼다. 그는 이 소설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복선화음’의 이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데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주목한다. 한편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기이한 만남이 나타나는 등 허구적인 이야기라도 사람의 일에 연관된다면 이를 두고 괴이하거나 맹랑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고 평한다. 그러면서 “말이 교화에 관련되면 괴이해도 해롭지 않고 일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괴이하고 헛되어도 기뻐할 만하네.”라는 김시습의 시 구절을 인용하였다.

- ① 유 한림이 유배지에서 얻은 질병이 ‘단 이슬’과 같은 물로써 치료된다는 설정에서, 유 한림의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엿볼 수 있겠군.
- ② 유 한림이 유배지에서 고초를 겪는 가운데 ‘예전의 충명함’을 회복하는 장면에서,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데로 나아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겠군.
- ③ 사 씨의 꿈에서 예견된 인도자와의 인연이 ‘여승’의 꿈에서 제시된 바와 조용하여 ‘여승’ 일행이 사 씨를 찾은 장면에서, 기이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학사정이 생기게 된 유래가 신이하지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 ‘지금까지 전해진다’고 한 점에서, 허구적인 이야기일지라도 사람의 일에 연관되므로 괴이한 것만으로는 볼 수 없겠군.
- ⑤ 유 한림에게 갖은 고초를 줄 만큼 ‘인심이 사나웠’던 행주 사람들이 샘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복선화음의 이치를 깨달은 데서, 그 이야기를 맹랑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알 수 있겠군.

< 정 답 >

0, 0, 0, 0, X
②, ④, ①, ⑤

1:100	O, X 문제
1) 훗날 ‘사 씨’는 꿈속에서 만난 왕비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O, X)	
<p>해설] O</p> <p>이 작품에서 왕비는 ‘사 씨’의 꿈에 나타나서 예언자와 조력자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첫 구절에 나오는 ‘부인이 이곳에 오긴 오겠지만’의 왕비의 말은 후에, ‘사 씨’가 왕비가 있는 곳으로 갈 것이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p> <p>문제 의도]</p> <p>이 문제는 지문의 내용을 토대로 뒤에 이어질 내용을 예상하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이 O ,X 문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은</p> <p>0. 다음 작품을 읽고 난 후에 나온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p> <p>도성 : 이 작품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향후에 ‘사 씨’는 왕비와 다시 재회하겠구나</p> <p>의 형식으로 나올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p> <p>또한 문제로 나오지 않더라도,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를 예상하며 예측하며 읽기와 글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p> <p>소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흐름이 있습니다. 지문을 읽으면서 향후 나올 이야기에 대해 예측이 가능하다면 속도가 올라갈 뿐 아니라, 정확한 작품 해석이 가능해집니다.</p>	

1:100	O, X 문제
2) 여승과 여동은 ‘사 씨’를 남해 도인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O, X)	
<p>해설] O</p> <p>이 작품에서 왕비는 ‘사 씨’의 꿈에 나타나서 ‘남해 도인이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탁하게 될 것이요. 이 또한 하늘의 뜻이니라.’고 말하고, ‘조만간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조금도 염려 마라’고 말했다. 또한 여승과 여동이 ‘조금 전 꿈결에 관음보살께서 어진 여자가 화를 만나 날이 저물어 갈 곳을 몰라 방황하니 급히 황룡묘로 가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고 말한 점을 보아, 조만간 길을 인도하는 자 = 여승과 여동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승과 여동이 ‘사 씨’를 남해 도인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p> <p>문제 의도]</p> <p>비문학과 문학에서 항상 강조했던 것이다. 바로 ‘=’관계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즉 지시하는 바가 어떤 대상 인지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A와 B와 C가 나온다면 A가 C를 가리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p> <p>이러한 문제 유형을 통해서 문제를 풀 때, 지시 대상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체크해보면서 독해를 연습하는 것도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p>	

1:100	O, X 문제
3) ‘유연수’는 과거에 ‘사 씨’의 말을 듣지 않고, 의심한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 (O, X)	
<p>해설] O</p> <p>이 작품에서 유연수가 “사 씨가 동청을 꺼렸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말이 옳도다. 어진 아내를 의심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대하리오.”에서 ‘어진 아내 = 사 씨’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p> <p>문제 의도]</p> <p>2번과 마찬가지로, ‘어진 아내 = 사 씨’라는 것만 알 수 있다면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문학에서 1:1 대응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p>	

1:100	O, X 문제
4) 위 소설에서 ‘왕비’와 ‘노파’는 ‘사 씨’와 ‘유연수’를 위기에서 구해주는 역할을 한다. (O, X)	
<p>해설] O</p> <p>이 작품에서 ‘왕비’는 ‘사 씨’의 꿈에 나타나 도움을 주고, ‘노파’는 ‘유연수’의 꿈에 나타나 도움을 준다.</p> <p>문제 의도]</p> <p>이 작품에서 증략을 기준으로 앞에 내용은 ‘사 씨’의 이야기이고, 뒷이야기는 ‘유연수’의 이야기이다. 또한 등장인물은 달라도 각각이 하는 역할은 같은 것으로 이야기가 같은 구조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물만 바뀌고 이야기는 똑같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올바른 독해를 했다고 볼 수 있다.</p>	

1:100	O, X 문제
5) ‘사 씨’와 ‘유연수’의 입몽과 각몽의 순간을 정확히 알 수 있다. (O, X)	
<p>해설] X</p> <p>이 작품에서 ‘사 씨’는 ‘주렴을 내는 소리’를 통해 꿈에서 깨는 순간을 알 수 있고, ‘유연수’는 ‘한림이 놀라 일어나니 꿈이었다’를 통해서 각몽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입몽의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다.</p> <p>문제 의도]</p> <p>입몽이라는 것은 꿈에 들어가는 순간을 말하고, 각몽은 꿈에서 깨는 순간을 말한다. 위의 해설처럼, 각 등장인물의 각몽의 순간을 나타내는 부분은 있지만 입몽의 시점은 알 수 없다.</p> <p>환몽구조의 경우에는 입몽과 각몽의 순간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러한 액자식 구성은 이야기의 주제가 달라지고, 등장인물의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인물이라는 점이라는 것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환몽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입몽과 각몽을 파악해서 이야기를 분리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p>	

[1~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016년 수능B형]

불을 끈 다음에 아내가 다시 소곤거리러 왔다.

“당신두 보셨죠? 오늘사 말고 영기 엄마 배가 유난히 더 불러 보였어요. 혹시 쌍둥이나 아닌가 싶어서 남의 일 같잖아요. 여덟 달밖에 안 된 배가 그렇게 만삭이니 원…….”

“당신더러 대신 낳으라고 떠맡기진 않을 거야. 걱정 마.”

㉠나는 그날 밤 디킨스와 램의 궁둥이를 번갈아 걷어차는 꿈을 꾸었다. 내가 권 씨의 궁둥이를 걷어차고 권 씨가 내 궁둥이를 걷어차는 꿈을 꾸었다.

아내가 권 씨네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해서 권 씨 부인의 그 금방 쏟아질 것만 같은 아랫배에 관한 관심이었다. 말투로 볼 때 남자들이 집을 비우는 낮 동안이면 더러 접촉도 가지는 모양이었다. ㉡예정일도 모르더라면서 아내는 킬킬킬 웃었다. 임신부가 자기 분만 예정일도 몰라야야 말이 되느냐고 핀잔했더니, 까짓것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어차피 때가 되면 배 아프며 낳기는 마찬가지라면서 태평으로 있더라는 것이었다.

권 씨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였다. 일정한 직장이 없으면서도 아침만 되면 출근 복장을 차리고 뺨질나게 밖으로 나가곤 했다. 몸에 붙인 기술도, 그렇다고 타고난 똑심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공사판 같은 데 나가 막일을 하는 눈치였다. “동주운아, 노을자아!” 하고 둘이 합창하듯이 길게 외치면서 일단 안방까지 들어오는 데 성공한 권 씨의 아이들은 끼니 때가 되어도 막무가내로 버티면서 문간방으로 돌아가지 않는 적이 자주 있게 되었다. 문간방의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징조였다. 그렇다고 권 씨나 권 씨 부인이 우리에게 터놓고 도움을 청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 다만 우리로 하여금 그런 꼴을 목격하고도 도울 마음을 먹지 않으면 도무지 인간이 아니게시리 상황을 최악의 선까지 잠자코 물고 갈 뿐이었다. 애당초 이순경이 기대했던 그대로 산타클로스 비슷한 꼴이 되어 쌀이나 연탄 따위를 슬그머니 문간방 부엌에다 넣어 주고 온 날 저녁이면 아내는 분하고 억울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임부나 철부지 애들을 생각한다면 그까짓 알량한 선심쯤 아무렇지도 않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제게 딸린 처자식조차 변변히 건사 못 하는 한 열간이 사내한테까지 자기 선심의 일부나마 미칠 일을 생각하면 껄뻘해서 잠이 안 올 지경이라고 생명을 앓았다. 권 씨가 여간내기 아니라고 속삭이던 게 옛그제인 걸 벌써 잊고 아내는 셋방 잘못 내렸다고 두고두고 자탄하는 것이었다.

남편이 여전히 별이가 시원찮은 상태에서 권 씨 부인은 어언 해산의 날을 맞게 되었다. 진통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되는 모양이었다. 아내의 귀땀으로는 점심 무렵이 지나서부터 그런다고 했다.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다가 나는 문간방에서 울리는 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되게 몸살을 하듯이 끄끙 앓는 소리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몸의 어딘가에 깊숙이 칼이라도 받는 양 한 차례 처절하게 부르짖고는 이내 도로 잠잠해지곤 하면서 이러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그것이 방을 세내 준 이후로 처음 듣는 권 씨 부인의 목소리였다.

“당신이 한번 권 씨 설득해 보세요. 제가 서너 번 얘길 했는데두 무슨 남자가 실실 웃기만 하면서 그저 염려 없다구만 그러네요.”

병원 얘기였다.

“권 씨가 거절하는 게 아니고 돈이 거절하는 거겠지.”

아내는 진즉부터 해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더러는 홍보고 또 더러는 우려해 왔었다.

“남산만이나 한 배를 갖구서 요즘 세상에 그래 앨 집에서, 그것도 산모 혼잡힘으로 낳겠다니, 아무래두 꼭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애요. 달이 다 차도록 기저귀감 하나 장만 앓는 여편네나 조산원 하나 부를 돈도 마련이 없는 사내나 어쩔 그리 짹짹인지!”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 나서 나는 권 씨를 마당으로 불러냈다. 듣던 대로 권 씨는 대뜸 아무 염려 말라면서 실

실 웃었다.

마치 곤경에 빠진 나를 극진히 위로해 주는 투였다.

“둘째 때도 마누라 혼자서 거뜬히 헤치웠거든요.”

“우리가 염려하는 건 권 선생네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의 일이라도 일이 잘못될 경우 난 권 선생을 원망하겠소.”

작자가 정도 이상으로 느물거린다 싶어 나는 엔간히 모진 소리를 남기고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 윤홍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1:100

1:100	O, X 문제
1) 이 소설에서 ‘권 씨’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희망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O, X) 2) ‘영기 엄마’는 해산 준비를 여태 혼자 해왔기 때문에 병원을 가지 않고 혼자 하려는 것이다. (O, X) 3) ‘나’는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소시민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O, X) 4) ‘아내’는 ‘나’가 ‘권 씨’의 가족에게 선심을 베푸는 것을 싫어하여, 생명을 앓고 있다. (O, X) 5) ‘아내’가 ‘영기 엄마’의 출산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을 통해, 오로지 ‘영기 엄마’의 건강만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O, X)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내’는 ‘권 씨네’에게 선심을 베푸는 것을 비판하는 ‘나’로 인해 생명을 앓는다.
- ② ‘아내’는 ‘권 씨’가 ‘권 씨네’의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간내기가 아니라고 간주한다.
- ③ ‘아내’는 ‘권 씨 부인’의 진통이 시작된 것을 ‘나’를 통해 알게된다.
- ④ ‘아내’의 불안감과 우려는 ‘나’로 하여금 ‘권 씨’를 불러내게 하는 계기가 된다.
- ⑤ ‘나’를 위로하는 ‘권 씨’의 행동은 ‘권 씨’에 대한 ‘아내’의 원망을 누그러뜨린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나’의 경험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은 ‘아내’의 말을 통해 다른 인물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은 ‘나’가 관찰하고 있는 인물들의 내면을 묘사하고 있다.
- ④ ㉠과 ㉢은 ‘나’와 인물들 간의 외적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과 ㉢은 인물들을 바라보는 ‘나’의 긍정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1970년대 한국 소설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공동체적 유대감이 파괴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소시민이 나타난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세태가 심화되고 계층 분화가 일어나면서 주변부로 밀려난 도시 빈민과 같은 소외 계층이 등장하는데, 이들도 소설의 주요한 제재로 반영되고 있다.

- ① ‘나’가 ‘권 씨네’를 의식하면서도 ‘권 씨네’의 상황에 거리를 두려는 것은 소시민의 내적 갈등을 보여 주는군.
- ② ‘권 씨’가 일정한 직업 없이 막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계층이 분화하면서 생겨난 도시 빈민의 처지를 나타내는군.
- ③ ‘아내’가 ‘권 씨네’를 대하는 이중적 태도는 공동체 의식과 개인주의 사이에 놓인 소시민의 모습을 반영하는군.
- ④ ‘권 씨 부인’이 혼자 힘으로 해산을 하려는 모습은 궁핍한 삶에 내몰린 소외 계층의 처지를 반영하는군.
- ⑤ ‘나’가 ‘권 씨네’에 대해 염려하며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한 것은 공동체적 유대감을 회복하려는 소시민의 욕망을 드러내는군.

< 정 답 >

X, X, O, X, X
④, ②, ⑤

1:100	O, X 문제
<p>1) 이 소설에서 ‘권 씨’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희망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O, X)</p> <p>해설] X</p> <p>이 작품에서 ‘권 씨’는 희망적인 인물임을 나타내는 긍정적 인물로 나오는게 아니라, 아내가 해산일이 다가 왔음에도 돈을 빌리는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는 무책임한 인물로 나온다. 때문에 ‘권 씨’를 희망적인 인물로 볼 수 없다.</p> <p>문제 의도]</p> <p>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이다. 인물들을 파악하면서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인물과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인물을 찾아서 인물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갈등을 파악 하는 것이 소설 작품 해석에 핵심입니다. 물론 갈등은 대화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이번 문제는 인물간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소설의 등장인물인 ‘나’와 ‘권 씨’의 관계를 파악하고 각 인물들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p>	

1:100	O, X 문제
<p>2) ‘영기 엄마’는 해산 준비를 여태 혼자 해왔기 때문에 병원을 가지 않고 혼자 하려는 것이다. (O, X)</p> <p>해설] X</p> <p>이 작품에서 ‘영기 엄마’가 해산 준비를 혼자 하는 이유는 여태 혼자 해온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병원을 갈 돈이 없기 때문이다.</p> <p>문제 의도]</p> <p>‘영기 엄마’가 산모 혼자 힘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나, ‘권 씨’가 둘째도 했다고 말한 이유는 병원에 가지 않는 변명으로 표면적인 이유에 해당한다.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가는 것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이 핵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 평소에 선지와 지문과의 1:1 대응 관계만을 강조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만을 통해서 정답을 해결할 경우 오답을 고를 수도 있다.</p> <p>문학은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이뤄지는 내용이므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단순히 지문에 나왔다고 정답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맥락 파악 후에 표면적 내용과 핵심적인 내용을 구분해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p>	

1:100	O, X 문제
3) '나'는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소시민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O, X)	
<p>해설] O</p> <p>보기를 통해서 '나'라는 인물이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소시민의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문에서 '나'는 '권 씨'에 대한 걱정과 '영기 엄마' 해산일에 발생할지 모르는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신에게 올 피해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p> <p>문제 의도]</p> <p>이 문제는 지문만을 통해서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소시민의 모습까지 떠올리기 힘들다. 보기를 통해서 같이 푸는 것인데, 문학 작품을 접했을 때 접근하는 순서가 있다.</p> <p>1. 제목</p> <p>2. 보기</p> <p>이다. 처음에 제목을 보고, 보기를 통해서 문학 작품 시, 소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보기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다. 보기에서 문학 작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한 문제이고, 지문을 보기 전에 반드시 정보를 활용해서 지문을 읽는 연습이 필요하다.</p>	

1:100	O, X 문제
4) '아내'는 '나'가 '권 씨'의 가족에게 선심을 베푸는 것을 싫어하여, 생명을 앗고 있다. (O, X)	
<p>해설] X</p> <p>이 작품에서 '임부나 철부지 애들을 생각한다면 그까짓 알량한 선심쯤 아무렇지도 않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제게 딸린 처자식조차 변변히 건사 못 하는 한 열간이 사내한테까지 자기 선심의 일부나마 미칠 일을 생각하면 껄뽀해서 잠이 안 올 지경이라고 생명을 앗았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권 씨'의 가족에게 선심을 베푸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p> <p>문제 의도]</p> <p>지문에서 1:1 대응방식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아내'와 대립의 관계에 있는 '권 씨'를 '영기 엄마'와 함께 묶어서 생각한다면 틀릴 수 있는 문제이다.</p> <p>소설에서는 많은 인물들이 나온다. 하지만 그 각각의 인물들과 맺는 관계는 전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공통적인 부분이 많다고 반드시 다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소설들 인물들이 나온다면 빠짐없이 인물들을 체크하고, 그 각각의 인물들이 서로 맺고 있는 인물간의 관계를 잘 파악해야지 오답을 걸러낼 수 있는 것이다. 인물간의 관계파악과 각각의 인물들이 맺고 있는 인물 관계는 다르다는 것을 유념하자.</p>	

5) '아내'가 '영기 엄마'의 출산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을 통해, 오로지 '영기 엄마'의 건강만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O, X)

해설] X

이 작품에서 '아내'는 '영기 엄마'를 걱정하고 있지만, 오로지 건강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기 엄마'가 잘못 될 경우 자신들에게 미칠 피해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다. 때문에 오로지 '영기 엄마'의 건강만을 걱정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문제 의도]

이 문제에 활용 된 것은,

1. 인물간의 관계 파악
2. 최상급 표현의 활용

2가지를 섞어서 문제를 내 보았습니다. '아내'가 '영기 엄마'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은 인물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취지로, '오로지'라는 최상급 표현을 엄두에 두는 취지로 하여, 문제에 접근하도록 문제를 내 보았습니다.